

“ 국민적 회개를 촉구하면서 ”

■ 이종윤 원로목사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허례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들을 반복하고 지도자들이 더 심하게 타락하고 헛된 것을 좇고 있으니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이 모르고 있는 것 3가지?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분이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 앞에서 그의 고국방문 소회(所懷)를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인이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백성 중 하나임을 모르고 있다. 세계 일등국가로 알려진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에 와보니 훨씬 더 잘해 놓고 잘 먹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각축하는 틈에서 지각변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인식 못하고 그보다 중복 죄과 세력이 각계각층에서 도사리고 내란 폭동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다. 셋째, 기후와 자연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임을 모르고 있다. 추위와 더위가 4계절을 통해 골고루 나뉘어져 있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계절 따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른다 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

한국인이 모르고 있는 3가지를 지적한 분의 깊은 통찰력에 공감을 하면서 필자는 그분에게 그분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들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분이 아셨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수정했을 것이다. 어둠의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고 주색잡기에 빠져 지상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IT산업, 조선산업, 자동차 생산뿐 아니라 문화의 한류 풍, 해외 선교사 25,000명 파송 등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가 놀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자원의 풍부, 우수한 두뇌, 체제의 독특성, 국민의 근면성 등의 이유로는 그 대답이 궁색해 진다는 것쯤은 자타가 공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갈라진 지 70여 년이 가깝도록 남북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북한은 예발산 같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예배당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기도예 열심 있는 한국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리스산 같은 축복 받은 땅이 되었다.

오늘의 풍량과 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무감각해진 안보의식도 문제가 되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온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살기 좋은 기후와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하고 찬미해야 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언정 슬프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국민적 회개를 촉구하며

건물과 교량이 무너지기 전 사회 도덕과 인간 양심이 무너졌고 경제 파탄과 국가질서가 붕괴되기 전 사치, 향락, 부패와 잘못된 가치관과 사이비 신앙관이 사회를 이 지경으로까지 빠지게 한 것이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자기변명이나 할 때가 아니다. 죄를 짓고 ‘내니이까’ 하던 가토 유다처럼 죄를 은폐시켜서도 안된다. 지금은 국민적 회개와 각성이 요청되는 때다. 하나님이 혹 회개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라도 새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385호] 2013년 10월 12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 W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8 :23-34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King's Authority"	Pastor
* Hymn	400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프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후쿠야 망 탕 켈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레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박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프, 린툼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산에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

■ 사 61:1~3

1960년대-1970년대에 남미에서는 해방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 등장하므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1. 성경이 가리키는 가난한 자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
 여기에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빈곤계층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때로 경제적 빈곤층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에브론' 이라고 읽으며 '겸손한 자' 와 동일한 뜻을 갖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때는 부요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땅을 빼앗겨 이제는 가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는 중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사야서에서의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외에 겸손한 자 등의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맥락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구원과 희망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미 성령의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함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심은, 그 대상과 목적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구원을 이루 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61:1에 기록된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동시에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예언 동시에 쫓겨난 아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예언 동산을 회복하므로 부요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은 모든 인간이 다 가난한 자이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부요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서울교회가 이러한 영혼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준우 원로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4(시 4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5(5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사 53:10-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에게 주시나...	김철홍 목사
* 찬 송 Hymn150(13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62:1 인 도 자
 찬 송 28 다 함 께
 기 도 노제현 집사
 성 경 ... 신4:1-7, 23-24 ; 인 도 자
 요4:23-24 ; 롬11:36-12:2...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예배의 개혁" 설 교 자
 (The Reformation of Worship)
 * 찬 송 42(1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송민정 권사
 성 경 벧후 3:8-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김양안박수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 배 및 집 회 시 간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임시당회 / 22일(주) 오전8시 가이오실
- 권사회 연합수련회(살롬, 제1, 2권사회) / 25일(수) 오후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 101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40분
- 706호 예배
영어,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903호 예배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노제현(안과), 김관섭(영상의학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김철홍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S.T.M.)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전, 서울교회 협동목사 ◆결 혼 1. 강현우 군(14교구 강명모 성도, 최미경 권사의 장남)과 코스기 하나 양(코스기 슈지 코스기 예즈코 씨의 장녀 / 10월28(토) 오후2시 엘타워 5층 마리골드(526-8600) /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역9번 출구 앞 2. 송인석 군(송경영, 고은미 씨의 차남)과 정여연 양(7교구 정인주 집사, 김정애 권사의 장녀) / 10월28(토) 오후3시30분 라비아컨벤션(2155-2850)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매원)역4번 출구 앞 무료 셔틀버스 승차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1,038명	274명	303명	1,615명	14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15일	헌금	34,882,070	
"	성 레 비		48,000
"	특별예배비		1,000,000
	찬양운영비		354,000
"	교회학교운영비		1,589,730
	선 교 비		2,800,000
"	출 판 비		270,000
	사무용품비		31,300
"	소모품비		848,000
	통 신 비		1,260,300
"	차량유지비		886,400
	세금과공과		41,200
"	복리후생비		217,040
	수도광열비		495,000
	환경유지비		706,000
	식당운영비		2,583,960
"	합 계	34,882,070	13,130,930